

## ‘10분 내’로 집안 정리하는 6가지 요령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집안에는 하루하루 물건이 쌓인다. 그러다 보면 정리 정돈 자체가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다. 물건을 정리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미국 리빙 매체 Living Etc가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는 10분 정리 6가지 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 ■ 첫째, 현실적이 되어라

정리에 할애할 수 있는 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먼저다. H2H Organizing 대표 벤 소레프는 “대부분 사람이 정리를 시작하고 갑자기 버거워져 포기한 채 끝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작은 좋았지만 중도 포기하게 되면 시작보다 집안은 더 엉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정리 정돈의 시간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장시간 일거리가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절해 아무것도 방해 받지 않고 정리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를 선택해야 한다.



### ■ 둘째, 시간을 설정하라

이 방법은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하루 중 여유가 있는 특정 시간에 스마트폰 타이머를 맞추고 그 시간에는 작은 공간이라도 정리를 해보는 것이다. 정리 시간이 길 필요도 없다. 딱 10분간만. “오늘은 책장 정리, 내일은 화장대 정리, 그 다음은 신발장 정리” 이런 식으로 10분 미션을 정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은 깨끗해져 있다.

### ■ 셋째, 구체적으로 정리하라



바로 라벨링이다. 큰 상자 5개를 준비해 각각 쓰레기, 기부, 판매, 수리, 보관 라벨을 붙인다. 방이나 거실에 쌓인 물건을 분류대로 상자 안에 정리하다 보면 물건 처리가 쉬워진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라고 말했다. 때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 ■ 넷째, 주방부터 시작하라

주방은 집의 심장부이자 가족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찬장, 서랍 등 어수선해지기 쉬운 공간 1순위다. 주방 정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물을 끓이는 10분 동안 서랍을 정리한다든지 식탁에 쌓인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이다.

### ■ 다섯째, 물건을 미리 사지 마라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물건을 사서 ‘쟁여 두는’ 습관은 공간의 어수선함을 불러온다. 세제, 청소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이 아닌 이상 이미 집 안에 있는 물건은 사지 않아도 된다.

### ■ 여섯째, 물건 사용 빈도를 생각하라

혹시 ‘언젠가 쓰겠지’ 싶은 양초를 거실에 놓아두고 있지 않나? ‘언젠가’ 라는 막연한 수식어는 결국 지금 필요가 없다는 뜻과 같다. 공간이 어수선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물건의 사용 빈도수를 생각해 정리하고 처분하는 습관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

사진=shutterstock



### 청국장 명가

구수한 향과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

# 더부러

### 여름 스페셜

시원한 맛과 고소한 향이 일품인 콩국수!



### 새로워진 주인과 더 맛있어진 더부러



홍어조림



치킨



골뱅이무침



오징어 철판볶음



천엽무침



해물파전

### 런치 스페셜

**12.99** (Weekdays)

비빔국수/졸면/칼국수  
수제비/오징어덮밥/청국장  
김치 or 해물볶음밥/콩국수  
오므라이스/돈까스정식

술과 함께 즐기세요~



**더부러 Double O | 909.597.3320**  
20627 Golden Springs Dr #1K, Diamond Bar, CA 91789